

# “국정안정협의체 수용” “법안 거부권 행사”... 한덕수 ‘난감’

〈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힘 vs 민주당 ‘살바싸움’**  
국민의힘 “국정협의체 거부하거나 야권 주도 통과법안 거부권 행사” 민주당 “국힘서 주도권 가져가도 경제·민생분야 협의체 구성 요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증권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박수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통과된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주도권을 두고 맞서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처지가 난감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거나, 한 권한대행에게 야권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한 재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일단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멈추겠다면서, 상황에 따라 탄핵 절차를 재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 상황이다.

16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박준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통령과 국가안보

실은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시점부터 한 권한대행을 보좌한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전날에는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총리실과 대통령실의 업무협조를 논의했다. 이번 주 중에 사회·과학기술·저출생대응수석 등 다른 수석실의 업무보고를 계속 받을 예정이다.

이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본격적으로 대통령의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해 살바 싸움을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안정협의체는 대통령 권한대행도 동의하는 꼭 필요한 일”이라며 “모든 논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국민의힘도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다. 이어 “혹시라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러우면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혁신당도 이대표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권한대행은 같은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회·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여전히 여당이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국정운영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정안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당수습이 완료되면 조속히 당정협의체를 지속하자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제안에 국회의장과 권한대행이 모두 호응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거절한 것이다.

이같이 여야가 ‘국정안정’을 내세우며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자, 한 권한대행의 입장이 다소 난처해졌다. 아직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정협의 등을 요구할 때 거칠할 명분도 없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현재 내란죄 혐의로 고발된 만큼, 민주당과 대립 구도를 세우기 어렵다.

당장 이대표가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김건희 여사·내란 특검이나 농업4법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다.

대통령 탄핵안과 달리, 국무위원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과반이 넘는 야권의 의석수만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최고위원들은 일제히 한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국정안정’에 방점을 둔 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 최상목 “여야 막론하고 협력... 경제정책 차질없이 추진”



경제불확실성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의 경제시스템과 긴급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 경제6단체에 기업활동 위축방지 당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경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여당·야당 가리지 않고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제6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기업활동 위축 방지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은

행에서 코우칭 리 아세안+3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과 면담하고,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모든 관계부처가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부총리와 리 소장은 한은에서 개최된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에 참석했다.

면담에서 최 부총리는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우리 경제의 양호한 경

제 기초여건과 견고한 대외 건전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를 통해 앞으로도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리 소장은 한국 정부의 신속한 금융시장 안정화 조치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회복력에 대한 AMRO

의 신뢰가 더욱 강화됐다고 전했다. 또 지난 11월 기재부-AMRO 간 연례협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건실하다는 평가에는 변함없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포럼 축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상황 및 미래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역내 국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했다. 국내 상황과 관련해서는 지난 12·3 계엄령 사태 이후 가중된

같은 날 최 부총리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6단체 간담회를 열고,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노란우산 쓰세요!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 사장님 지원 플랫폼

#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암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인 심의번호 제24-088(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노란우산은 예금보험공단에 따라 예금보험금에 보장이 없으며, 중소기업중앙회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0조에 따라 장려 지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매 결산마다 납부원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